

'한반도 첫 수도' 위상 높다

고창고인돌박물관, 개관 10년 만에 '1종 전문박물관' 등록 9명의 기증자로부터 101점의 소중한 유물 수증이 큰 역할

고창고인돌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면서 국가귀속 유물의 위탁관리 등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고인돌유적 보존관리와 전문적인 해설을 위해 2008년 건립된 '고창고인돌박물관'이 작년 12월 27일 전라북도로부터 관련법에 따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박물관 등록은 고창고인돌유적을 전문적으로 해설하고, 선사시대 유물의 보존관리 등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국가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그동안 지역에선 국가인증 박물관이 없어 고창군내 발굴된 국가귀속 유물을 국립전주박물관 등에서 봐야 했다. 반면, 이번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으로 국가귀속 유물 위탁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高敞 竹林里 支石墓群)은 사적 제391호 지정(문화재청, 1984년)되고, 세계문화유산 제C-977호로 등재(유네스코, 2000년) 되는 등 인류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고창군은 올해 고인돌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박물관 법정 등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물 기증 등에 공을 들여왔다. 이후 올 한 해 고창문화연구가 이병렬씨가 소장하고 있던 청자광구병 등 10점을 선뜻 내놓는 등 모두 9명의 기증자로부터 101점을 수증했다.

또 선사시대, 원삼국(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유물 총 60점을 구입해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고인돌 관련 유물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유기상 군수 취임이후 전문박물관 등록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컸다.

고인돌박물관 관계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가승유물과 오랫동안 소장해온 소중한 유물을 아낌없이 기증해 주신 군민들의 기증 정신이 이룩한 성과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인돌박물관이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 공립박물관으로서 수준 있는 전시와 소장 유물 등의 체계적 보존 및 연구,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9월에 건립된 '고창고인돌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청동기 시대 고인돌 박물관이다. 1층은 수장고(233㎡)와 3D입체영상실(251㎡), 기획전시실(225㎡), 2층은 상설전시실(1291㎡), 3층은 체험전시실(251㎡)과 옥상정원(390㎡)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고인돌 팔기모습 이라든가 청동기시대의 마을을 재현해 그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1:1모형으로 전시돼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고인돌박물관 전경.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10명 수사의뢰 · 68명 징계 주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권고안 이행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최근까지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등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 10명을 수사 의뢰,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 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자는 131명(문체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이었다.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었다.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인 중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중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명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주의 조치했다.

그 결과,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권고 44명)에 대해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13일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숫자다. 문체부는 징계 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13일 발표에 없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17명)에 대한 엄중 주의조

치도 추가하였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61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징계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문화수석 및 비서관, 문체부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이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재판 중에 있다. 그간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을 유관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보조치 한 바 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 2019년 초 발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세계 태권도 성지로 '우뚝'

무주태권도원, 한국관광 100선 선정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2018년 12월 31일 발표)

한국관광 100선은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작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평가와 지자체 추천,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서면 및 현장 평가, 최종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전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태권도원은 총면적 231만4,000㎡(약 70만 평) 규모로 2014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183개국 13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13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태권도 경기, 태권도 수련 및 학술교류, 전지훈련 등 전문 태권도인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일반 기업의 세미나·워크숍 등 MICE 관련 행사,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태권도 체험, 대학교 MT 등 계절각층에 태권도를 통한 테마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태권도원을 방문하면 매일 두 차례의 태권도 시범공연과 태권도 관련 유물 5천여 점을 보유한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 IT 기술을 접목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재미있게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체험관, 해발 600여 미터에 위치한 전망대와 모노레일 등 수많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태권도원 내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전통무예수련장 등의 자연환경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라는 명예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상징지구 건립을 비롯해 태권도 AR·VR 체험시설 설치 등을 통해 태권도의 진정한 멋과 재미를 선사하고 태권도 주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원 방문과 관련한 안내는 063-320-0114(태권도원 대표번호)나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s://www.tpf.or.kr/t1/main/index.do>)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석환 개인전... 북한산의 빼어난 풍광에 '풍덩'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7일까지 김석환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며, 서울디자인올림픽 건축작품전, U+A세계건축가대회 건축작품전 등 다수의 기획초대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는 도시건축 등에서 실무를 쌓은 후 1994년 터·울건축을 개설하여 작품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1990~1997 르 꼬르뷔지에의 생애와 건축 기행, 1999년 건축문화의해 초대작가 및 서울시 MP, 서울산업대, 광주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삼육대학교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작가가 건축가에서 화가라는 길에 깊이 발을 디딘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산행 중 펜을 들고 조그만 화첩에 마주치는 산세의 풍광들을 스케치하다가 점차 자신도 모르게 전체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그림의 맛에 빠져들었다. 무엇보다도 실사뿐만 이루어지는 치밀한 묘사 기법은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건축설계와 일치하는 바가 있기에 그렇다. 실사기에 모든 작업은 오로지 현장에서만 이루어진다. 실상과 마주하면서 그려야만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과 미적 감흥을 온전히 받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산에 올라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오가는 사람들은 북한산의 빼어난 풍광에 연신 감탄하곤 한다. 그것은 실제 자연의 기세와 형상적 빼어남에 대한 자연스런 감동의 표현이며 그 같은 감동은 실제 풍경을 대하는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보는 이에게 감동을 유발하는 현장의 풍광을 설계 도면을 그리듯이 화폭에 충실히 재현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충실히 전하려고 했으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대상의 사의적 표현이나 사진을 보고 그린 작품이 갖는 실재감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로 인해 실제 경치를 보고 느끼지는 특유의 호흡과 생동감 또한 작품을 보는 이에게 느껴지게 하고자 했다.

/김진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